〈인문사회계열〉

2016학년도 논술전형
모의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맥락 속에서 글의 주제를 찾고 정리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본이기에 이를 검증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제시문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지문이다.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낯설지 않을 문제다. 지식 측정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정리하는 답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가)는 황지우의 시「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이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의 의지를 그렸다. (나)는『고등학교 사회』의 지문으로, 자아 형성에 개인의 의지와 목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다)는『고등학교 법과 정치』의 지문으로, 인권 억압과 왜곡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와 (다)를 통해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주체의 모습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나무를 제재로 하여 형상화한 것이 (가)라고 할 수 있다. (라)는『고등학교 사회·문화』의 지문으로, 개인은 문화적·상징적 행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상호간의 협력과 질서를 통해 사회를 이룬다고 한다. 이는 (나)와 (다)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시에는 (라)의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제시문을 통하여 (가) 시의 주제와 전개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한편으로 그 한계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출제의도에 따라 학생들이 제시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제시문의 순서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문학 분야의 내용을『고등학교 사회·문화』,『고등학교 법과 정치』,『고등학교 사회』교과서와 연계하여, 문학적 감성과 사회과학적 이해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2. 예시 답안

이 시의 주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련을 극복하여 자아를 완성하는 주체를 노래하는 것이다. 그 양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온 몸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 목표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온 몸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아가는 주체를 탐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자아는 혼자만의 힘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그렇지만, 사회에 대하여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거부하'는 의식과 행동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월' 혁명과 같은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통하여 자아는 마침내 완성된다.

그러나 이 시는 지나치게 갈등과 극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와 사회의 형성에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과 질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는 그 점에 대해 언급이 없어 매우 일방적이다.

이 시는 자기를 완성하는 주체의 모습을 치열하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아와 사회의 측면이 부각되어 있어서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반면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과 문화의 역할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출제 근거

(가)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김중신 외, 『고등학교 국어1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2015, 192면.
(나) 설동훈 외,『고등학교 사회』, (주)미래엔, 2015, 14면.
(다) 김왕근 외,『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2013, 20~21면.
(라) 이진석 외,『고등학교 사회·문화』, (주)지학사, 2015, 20면.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배려의 개념은『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주요 교육 내용 중 하나다. 2번 문항은 배려 개념과 관련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소재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공감 능력의 결여와 다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발췌한 글이다. 도덕이 행위와 습관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다)는 퇴계 이황이 강조한 '지행병진(知行竝進)', 즉 앎의 실천에 관한 글이다. (라)는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응답하는 도덕적 감정이나 태도를 중시'하는 배려 윤리에 관한 글이다. (마)는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 上)」에 나오는 글이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느끼는 측은한 마음이 도덕 실천의 출발임을 주장하는 글이다.

2. 예시 답안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아이를 구하러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처지에서 그 학생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을 괴롭히며 재미를 느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상호성에 기반을 둔 배려 윤리는 단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다른 학생을 괴롭힌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쳤다는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여야 한다.

배려적 사고를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배려란 다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가짐 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능력은 실천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화하여야 한다.

3. 출제 근거

(가)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5, 15면.
(나)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주)미래엔, 2015, 37면.
(다)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5, 29면.
(라) 김선욱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2015, 192면.
(마) 박효종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교학사, 2014, 15면.
<보기> 문용린 외, 『고등학교 도덕』, (주)금성출판사, 2014, 49면.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환경을 대하는 인류의 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미래의 인류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의 암울한 장래에 대해 현재의 인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과거의 인류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궤적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국민이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세대가 이해해야 할 주요 이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환경 문제와 함께 대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논의의 출현과 전개 과정, 이것이 현대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이해하였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나), (다), (라) 제시문의 해설과 제시문의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는 조선 시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환경 보호의 예이다.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원의 남용이 미칠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의 문제가 전근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고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는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의 중요성과 순천만이 연안 습지 보호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생태 교육과 관광의 특구로 주목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생태 관광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는 대기 오염,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환경 운동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리우 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제시하였다.

(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시민과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핵물질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도시로 거듭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가)의 경우,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조선 초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원의 남용이 미칠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나)에서는 연안 습지의 보존을 통해 생태 교육과 관광을 병행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순천만의 예를 들어 생태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참여가 촉구되기는 하나 대기 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가 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과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핵물질의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도시로 거듭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환경 정책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건이며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시민의 노력은 물론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

3. 출제 근거

(가) 김선경, 「朝鮮前期의 山林制度 - 조선국가의 山林政策과 인민지배」, 『國史館論叢』 56, 국사편찬위원회, 1994, 81~82면

(나)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 한솔교육, 2013, 162면

(다) 설동훈 외, 『고등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2013, 200, 203면

(라)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 한솔교육, 2013, 164면

<보기>세계환경발전위원회,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1994, 29~30면